



오늘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
| 2-3 | 특집기획 | 7 | 온라인 비전트립 | 11 | 남선교회 | 14 | 겨자씨이야기 |
| 4-5 | 창립기념주일 설교 | 8-9 | 블레싱만나데이 화보 | 12 | 춘천세리교회 방문 | 15 | 통신공사 |
| 6 | 창립기념주일 행사 | 10 | 사랑나무 소개 | 13 | 파주삼성교회 방문 | 16 | 교회사용설명서 |

2022 주님의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1.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2.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4.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5.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
6.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며 살아갑니다.
7.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2022. 6. 26 제 1800호 |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 창립기념주일

주일예배

•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	시간	인도	기도	성경봉독
1부	오전 7:00	이 상 훈 목사	김 도 목 은퇴장로	권 숙 진 집사
2부	오전 9:00	이 진 희 목사	홍 근 용 은퇴장로	김 효 은 집사
3부	오전 11:00	황 바 울 목사	양 동 훈 은퇴장로	이 윤 주 집사
4부	오후 1:00	이 중 성 목사	김 승 노 안수집사	설 교 자
5부(청년)	오후 2:30	정 구 민 목사	방 혜 령 권 사	김 중 희 목사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요 4:23... 인도자

송영 Doxology... 찬양대

• 찬송 Hymn... 주께서 높은 보좌에... 다함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s... 9. 시편 15편... 다함께

• 참회기도 Confession... 인도자

• 사죄의화신 Declaration of Forgiveness... 례 3:23-24...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210장(통245장)... 다함께

기도 Prayer... 말은이

성도의교제 Fellowship of the Saints...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Acts) 7:37-53... 말은이

찬양 Anthem... 찬양대

말씀선포 Sermon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김화수 목사 Rev. Hwa Soo Kim

찬송 Hymn... 450장(통376장)... 다함께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함께

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송의찬양 Commissioning Hymn... 여기에 모인 우리(1절)... 다함께

도 Benediction... 설교자

경 Doxology... 찬양대

홍은식 김예경 찬 I 호산나 (Con. 민태경 Org. 오세은 Piano. 조선희)
홍기호 김영주 찬 II 시 온 (Con. 김현욱 Piano. 정호정)
홍승길 남현숙 찬 III 살 례 (Con. 강진명 Org. 김성희 Piano. 정이와)
황영균 이경란 찬 IV 임마누엘 (Con. 이명국 Piano. 김혜경)

2022 주님의교회

임재와 헌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1.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2.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3. 일상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4.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갑니다.
5.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갑니다.
6.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며 살아갑니다.
7.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2022. 6. 26 제 1800호 |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 창립기념주일

주일예배 (4부)

•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	시간	인도	기도	성경봉독
1부	오전 7:00	이 상 훈 목사	김 도 목 은퇴장로	권 숙 진 집사
2부	오전 9:00	이 진 희 목사	홍 근 용 은퇴장로	김 효 은 집사
3부	오전 11:00	황 바 울 목사	양 동 훈 은퇴장로	이 윤 주 집사
4부	오후 1:00	이 중 성 목사	김 승 노 안수집사	설 교 자
5부(청년)	오후 2:30	정 구 민 목사	방 혜 령 권 사	김 중 희 목사

찬양 Anthem... 찬양대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요 4:23... 인도자

• 찬송 Hymn... 주께서 높은 보좌에...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 찬송 Hymn...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다함께

기도 Prayer... 말은이

송영 Doxology... 찬양대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성도의교제 Fellowship of the Saints...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Acts) 7:37-53... 설교자

찬양 Anthem... 찬양대

말씀선포 Sermon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김화수 목사 Rev. Hwa Soo Kim

기도 Prayer... 설교자

• 파송의찬양 Commissioning Hymn... 여기에 모인 우리(1절)...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 송영 Doxology... 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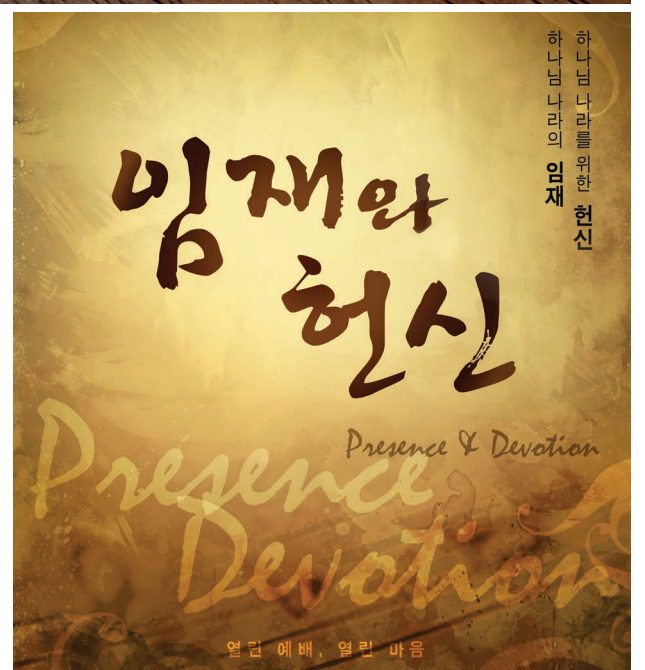
봉 헌 홍은식 김예경 찬 I 호산나 (Con. 민태경 Org. 오세은 Piano. 조선희)
홍기호 김영주 찬 II 시 온 (Con. 김현욱 Piano. 정호정)
홍승길 남현숙 찬 III 살 례 (Con. 강진명 Org. 김성희 Piano. 정이와)
황영균 이경란 찬 IV 임마누엘 (Con. 이명국 Piano. 김혜경)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34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10년에 4부 찬양 예배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찬양 예배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4부 예배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1~3부 예배 주보와는 다른 4부 예배의 주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재와 헌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만 구하고 자신은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 회퍼는 그의 저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실제적인 섬김이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을 구체적으로 돕는다는 말인데,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손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때에 '임재와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미래의 주님의교회 특집기획
'선교'를 다시 생각한다 ⑥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느닷없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촉발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올해 주님의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향해야 할 새로운 뜻대로 '선교'를 세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글함글

발제 순서

1. 머릿글 _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류경민 목사 / 주님의교회 부목사

이 변화의 시대에 왜 우리는 '선교'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머릿글입니다. '주님의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정기목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총회 선교훈련원 부원장

한국 교회가 질적 선교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을 통해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해봅니다.

3.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김영동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우정선교회 연구위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주님의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오기까지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태동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봅니다. 이전까지의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나아가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4.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한국일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은퇴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의 선교함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선교적 교회'의 태동, 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문제점 및 한국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봅니다.

5. 선교적 '교회 성장'을 이루는 교회

박보경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한국 앙스펠로십 대표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작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편견을 넘어서는 '선교적 교회 성장'의 차원을 알아보고, 주님의교회의 성장의 영역을 생각해봅니다.

6. 선교적 소통 : 세상과 이웃을 향한 경청

이병욱 교수 /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

'선교적 교회'는 이웃을 향합니다. 이전에도 교회는 이웃을 만나왔지만 선포 중심의 일방적 소통이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이고 대화적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가 요청됩니다.

7.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

김도일 교수 /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가정교회마을연구소 공동소장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처럼, 교육도 역시 하나님의 교육(에듀케이션 데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하듯이, 기독교 교육이 기존의 교회 건물 안 교육을 넘어서서 가정, 교회, 마을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육이 요청됩니다.

8.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

한강희 교수 / 한신대 선교학과 연구교수

'선교적 교회'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사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기준과 지표이고, 다른 하나는 '선교적 교회'의 유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과 모델들을 살펴보고,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확장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시기를 지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교인수의 하락과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의 하락 등과 같은 한국교회의 위기의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는 것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교회의 부흥은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웃과 사회와 단절되어있는 교회가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과의 단절은 자연스레 이웃과의 소통의 실패 또는 부재와 연결됩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그것이 복음일지라도—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방적인 독백(monologue)의 소통이었습니다. 최동규 교수(서울신대, 선교학)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선교가 화자중심적 일방향 소통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을 믿는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한 세기 이상 한국 사회는 크고 작은 다양한 국가적이고 사회적 위기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입장에서는 망해가고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조선인 교회로 와야한다는 방주구원론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웃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주장)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이웃과 대화하기보다는 선포하는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백적 선포에 익숙한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고 무례하게 비춰졌습니다. 이런 교회의 태도 속에는 서구 선교사들이 가졌던 우리 문화에 대한 서구문화의 우월감이 투사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적 우월감을 가졌던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교회의 소통방식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거나 심지어 이기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교회가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이웃과의 소통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교회의 소통방식이 선포중심의 독백적 소통이었다면, 선교적 교회는 경청 중심의 대화적 소통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은 단순한 구호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한 행위(doing)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being)나 정체성(identity)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통방식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화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 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대화'로 이해했습니다. 대화로서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루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과 연결시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대화 가운데 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대화적 이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성부/성자/성령)이 갖는 독자성과 하나됨을 동시에 붙잡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서로에게 말하고 듣고 답하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명사'로서 정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동사'로서 동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대화적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대화적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소리를 더 잘 듣고자 사랑으로 겸손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식도 대화적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셨는데, 그들이 언약을 맺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과의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하찮은 존재를 자신과 대화할 수는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대화적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적 관계의 회복에 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구원 이야기의 절정이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인간과 동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언어로 자신을 번역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번역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대화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적 관계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이 스스로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웃고 노래하며 대화하는 관계로 살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예배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대화적이시기에 그분의 선교도 대화적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도 대화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대화적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각각의 지역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임을 강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대화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에 경청하셨고, 죄를 그들에게 다시 경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경청하셨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경청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의 소리에 경청하셔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많은 대화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선교학자 쥘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선교는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교는 첫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청하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쥘더마이어는 경청하지 못하는 자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대화와 경청을 하면서, 스토틀(John Stott)는 선포가 일방적인 독백이 되는 것은 선포자의 교만에 기인하며 진정한 기독교적 선포는 항상 대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포하기 전에 먼저 현대인들의 고통과 절망과 의심과 분노에 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대화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경청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웃을 향해 일방적이고 독백적으로 소통해왔기에, 대화적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대화적 선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경청은 삼중 경청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내부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청과 이웃의 소리에 대한 경청을 해야 하는데, 그 경청에 대한 교회 내부의 이해에 대해서도 경청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부의 경청은 한 사람의 리더의 이해가 일방적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공동체의 영적분별을 도모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경청은 바로의 이웃과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동안 한국 교회는 두 번

째 경청까지는 노력했지만,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에는 소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부르실 때 세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 주시길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명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는데 있어서 삼중경청 즉 '하나님을 향한 경청',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청', '이웃을 향한 경청'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웃을 향한 경청'에 교회는 상대적으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경청을 위해서 선교적 교회는 세 가지 경청의 태도 또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첫째로 듣는 귀(listening ears)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개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듣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듣는 눈(listening eyes)입니다. 언어는 문자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세상에는 사회/경제/경제적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약자들이 있는데, 경청하는 눈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마음(listening heart)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눈이 방법 또는 기술적 측면이라면, 듣는 마음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교회가 기술적으로 앞의 두 능력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듣는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의 형식을 추가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포중심의 독백적 소통에서 이웃을 향한 경청 중심의 대화적 소통의 패러다임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선교가 대화적이라는 것은 교회와 이웃의 동등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선교해 왔기에, 교회가 이웃의 소리에 경청하는 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청은 하나님을 향한 경청,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청, 이웃을 향한 경청을 포함합니다. 이웃의 소리를 더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듣는 귀와 듣는 눈과 듣는 마음을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적 관계로 부르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가시는 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은 다만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때론 우리의 기대와 판단을 넘어설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대화적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소리를 더 잘 듣고자 사랑으로 겸손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예배 설교
김화수 담임목사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은 2022년 6월 26일 김화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의 제목으로 기념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전문을 수록합니다.

함글함글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교수님이 쓰신 “30년만의 휴식(이무석/비전과 리더쉽)”이란 책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어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버스 내 승객들에게 이런 말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껌을 팔고 있습니다. 한 통에 500원입니다. 한 통씩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여기까지는 늘 볼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하여 이익을 남기는 껌팔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1,000원 짜리 지폐를 내밀자 소녀는 500원을 거슬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사는 “돈을 거슬러 주는 것을 보니 넌 정직하구나.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고 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학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그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여기저기서 껌을 사겠다고 소녀를 불렀습니다.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 순간 승객들을 움직인 힘-그것은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그것 또한 정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 또한 정직입니다.

오늘은 창립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인 이 특별한 주일에 무엇에 대해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하고 답을 찾은 것 중의 하나가 정직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기가 되어야 할 덕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덕목이 있었습니다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 중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직을 회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분들의 삶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주님의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스데반은 38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강행합니다. 그들은 애굽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로 진입했고 또 길 떠나서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여 년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광야 시절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느낌이 어떠합니까? 광야 생활의 이미지가 어떠하죠? 예,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훈련을 받았단 말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훈련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단 말인가? 크게 두 가지 훈련을 받았습다. 바로 이 두 가지 훈련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훈련을 소화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동사형은 다바르(DABAAR)입니다. 다바르란 동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야훈련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광야는 즐길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황량함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현장이 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맞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곧 ‘다바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나 혼자만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바르하는 개인 영성 훈련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에 충실함으로 주께서 쓰시기 원하실 때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바르(DABAAR)란 동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란 단어에서 점 하나를 고치면 드바르(DBAAR)가 됩니다. 드바르(DBAAR)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지성소란 어떤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이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제사의 마침표를 찍고 제사가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엔 일 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 받기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동안에 가장 중심에 성막을 모시고 행진하였는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성소를 향해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교회 구성원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교회 교우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주님의교회 교우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즐깁니다. 그만큼 주님의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의교회 교우인 우리가 이 예배드림의 삶에 실패하면 믿음의 삶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드림의 삶이 믿음의 삶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명 재상 글레드스톤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제국의 수장석보다 더 존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직을 회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본기가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고 그분들의 삶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주님의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더 귀하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10여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라는 정말 길고도 긴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예배자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오지 않고서도 예배드림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중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의 예배라도 예배드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나의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나의 전심을 다해 예배드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함께 참여할 순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구경꾼은 없습니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능동적인 자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와 찬양 등 모든 순서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나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여하는 나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양대는 찬양하고 나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는 아닐지라도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핵심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 원하신다면 적어도 이 예배드림의 삶에 지금 나는 충실한가? 나를 돌아보고, 예배드림의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38절 후반부를 보면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증거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 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 네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교회의 각성(찰스 스윈돌/두란노서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트럭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네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 빠른 길도 알아서 찾아 줍니다. 모든 경로가 눈앞에 제시되고, 더구나 "잠시 후 우회전합니다." 하면서 친절

하게 방향까지 알려 줍니다. 때로 "길을 잃으셨습니다. 참 바보 같군요!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비게이션은 절대화를 내는 법이 없이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친절하게 '재탐색'해서 명확하게 경로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네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춰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야야, 나는 네 주의를 끌려고 애쓰고 있다. 이쪽으로 돌아라.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길 바란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재탐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는 결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단 한번도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네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보여지고 드러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내 속에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길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공동체 안으로, 세상 속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기 원하십니까? 영적 네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오늘은 블레싱 만나데일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우들도 함께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나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다시 한번 더 마음으로 결신하신다면 올해 맞는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뜻깊고 의미있는 기념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주님이 참 주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예배드림에 더욱 더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창립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소망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교회 교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더 일깨움 받습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나의 전심으로 준비해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블레싱만나데일로 온 교우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당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더 잘 준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립 34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식

창립 34주년을 축하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인 지난 6월 26일 3부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교회 34주년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1층 로비에서 있었다. 이날 커팅식에는 김화수 담임목사와 창립교인 여러분, 서기장로가 참석했다.

창립 34주년 기념
장로은퇴식

10년간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6월 26일 3부 예배에서는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장로의 은퇴식이 거행되었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하며 감사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동현수 장로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지체로 주님의교회를 구성하고 섬기고 있다며, 10년간 시무장로로 사역분과 위원장을 감당하며 지체들과 함께 헌신하며 지내왔고, 10년의 시간동안 담임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부교역자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다른 임지로 가셨으며 교인의 40% 이상이 10년 이내에 오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교회의 머리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도 비어 있었고 사역자들도 부족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시무장로를 벗어나 평신도로서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창립 34주년 기념
명예권사 추대식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명예권사는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이며, 교회등록 20년 이상 되신 분 중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신앙과 덕망이 인정되신 분들 중에서 추대하는데 6월 26일 3부 예배에서는 강석란, 구정, 김경숙, 김경순, 김숙자, 김정신, 원종숙, 이신숙, 이은숙, 정순자 집사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었다.

해외선교부
2022 온라인 비전트립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선 모든 열방과 피조물에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주신 열정으로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주님의교회는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로 비전트립팀을 파송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과 마을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비전트립팀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용사, 교사, 간호사, 약사, 의사 등으로 구성된 비전트립팀은 지역 사람들을 초청해서 머리 미용을 해드리고, 한국어를 알려드리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의 건강을 진료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는 비전트립을 통하여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이후 현지에 비전트립팀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선교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만나 왔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선교지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만나려 합니다.

주님의교회는 동시에 3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ZOOM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각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ZOOM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 비전트립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각 선교지의 시차를 고려하여 선교지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만남을 진행할 것입니다. 올해(2022년)에는 주님의교회에서 파송한 네 명의 선교사님이 있는 4개의 지역에 교구별 지정 없이 자유로운 형태로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각 선교지에 주님의교회 목사님들께서 두 분씩 협력하시게 되어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전트립이 될 것입니다.

해외선교부

비전트립 나라별 일정과 담당 선교사님 (목사님)

베트남	7.15(금)~16(토) / 최화평, 김사랑 선교사님 / 박주영, 배윤환 목사님
	베트남 현지 사역 소개, 예배와 기도회
키르기스스탄	7.22(금)~23(토) /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님 / 이종성, 류경민 목사님
	키르기스스탄 선교 소개와 현지 교회(미르교회와 카라콜 가정 교회)예배와 기도회
코스타리카	7.29(금)~30(토) / 금상호, 김미경 선교사님 / 박민규, 이대혁 목사님
	코스타리카 선교 소개와 선교 사역 강의, 예배와 기도회
필리핀	8.19(금)~20(토) / 유성훈, 이경 선교사님 / 윤경수, 한시영 목사님
	필리핀 현지 사역 소개(딜라달라 난민촌 구제사역), 예배와 기도회



베트남 Vietnam

선교사 최화평, 김사랑, 최O하, 최O규

선교 모토 (Motto) 협력과 나눔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메일 cibgggn@naver.com

선교 사역 소개 미자립교회 지원, 어린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소액자본대출 사역을 통해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선교사 윤바나바, 김은비, 윤디모데, 윤요셉

선교 모토 (Motto) 선교,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이사야 61:3)

이메일 ky7170@gmail.com

선교 사역 소개 "유라시아 크리스천 태권도 네트워크 사역", "구강보건 사역", "치과위생사 교육", "이동진료" 등을 통해 주님의 자상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The Philippines

선교사 유성훈, 이경, 유태욱, 유형욱

선교 모토 (Motto) 나와 같은 또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메일 sori2929@naver.com

선교 사역 소개 "딜라달라, 아이따 지역의 난민촌 선교", "한식 식당 선교" 등을 통하여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 Costa Rica

선교사 금상호, 김미경

선교 모토 (Motto) 다양한 현장에서 실험 정신으로 기대와 기도!

이메일 pastorkum@hanmail.net

선교 사역 소개 "현지 교단 교회 리더 제자화 훈련", "현지 교회 개척 및 설립 지원", "현지 교회 및 교도소 방문 사역 협력"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창립 34주년 기념
블레싱만나데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다

주님의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34주년 기념행사로 장로은퇴식, 명예권사취임식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우들이 다시 현장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만나데일로 34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기념행사의 이모저모를 화보로 꾸몄습니다.





사랑나무부
사랑나무

사랑나무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4월까지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사랑나무 친구들과 가족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전문기관도 오랜 시간 열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족들 또한 불안, 우울감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랑나무 친구들은 대면 방식 위주의 돌봄과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나마 다니던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으며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발달장애와 자폐를 가진 친구들과 그 가족들은 숨막히는 일상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사랑나무 가족들은 어려움 사랑나무 예배 또한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며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감염 폭증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 인원제한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랑나무 가족들 모두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롬 12:4-5)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사랑나무는 발달장애와 자폐를 가진 아동부터 청년까지 여러 지체들이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나무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나무는 발달장애와 자폐를 가진 친구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사랑나무는 발달장애, 자폐를 가진 친구들의 가정과 함께 합니다.

현재 사랑나무 공동체는 탁준한 부장님, 김명숙 지도권사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선생님들과 열 다섯 가정의 친구들이 주일 오전 11시 주님의교회 지하 1층 사랑나무 예배실에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노홍주 전도사 / 사랑나무



남선교회연합회
3차 산상수훈 트래킹

마냥 머무르고만 싶었던 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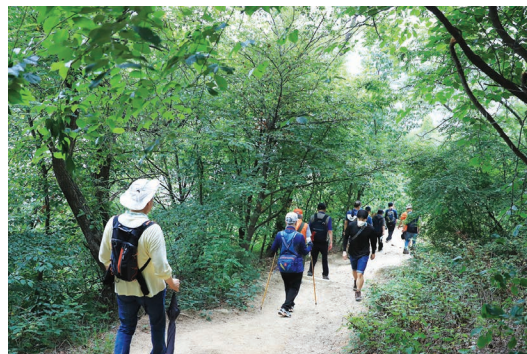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 가득 잠까지 설쳐가며 집을 나섰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함께 하는 남선교회 연합회 산상수훈 트래킹 6월 18일에 안산 자락길에 다녀왔습니다. 4월에는 남한산성 5월에는 과천 대공원 트래킹에 이어서 세 번째 트래킹이었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만치 날씨가 꽤나 후덥지근한 주말에 반가운 남선교회 회원들과 힐링이 가득한 행복한 트래킹의 여정이어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 하였지만 다행히 비는 안내려 운무가 잔뜩 낀 탓에 어쩔 운치가 있는 날이기도 했던 차분한 산행으로 이어진 참 좋았던 트래킹이었습니다.

산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처럼 있어 주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움 자체이었습니다. 함께한 주말 산행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감을 덩으로 느끼고 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산상수훈 트래킹 공지제목에 딱 맞게 폭신평신푼 구름 위를 걷는 듯 살짝 흐린 날씨에 숲속에서 울려 퍼졌던 청량한 새소리. 마냥 머무르고만 싶었던 그 길 자락길에 연결되지 않은 흙길도 걸으며 또 가슴 한 켠에 감사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저장해보았습니다.

시원하고 서늘했던 휴식 같은 숲길 속에 한 주간의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지는 힐링 모임으로 매주 세번째 토요일마다 산상수훈 트래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지 올려주시고 리딩을 해주신 연합회 임원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형섭 장로 / 2남선교회



2여선교회
협력교회 방문

춘천 맑은세상세린교회

주님의교회 6개 여전도회에서는 주님의교회를 사역하셨던 교역자들이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춘천 맑은세상세린교회, 포천 송우제일교회, 동해 하늘꿈교회, 파주 삼성교회, 음성 늘푸른교회, 영주 평강교회, 6개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들께 작은 발과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여전도회 적은 회비로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부목사님들 사역기간이 6년이라 본의 아니게 일년마다 성도들이 이별이 아닌 떠남의 아쉬움과 허전함을 맞습니다. 2년 반이란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기지개를 켜 여전도회는 본 교회를 사역하셨던 교역자들이 현재 시무하시는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여전도회는 정희성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춘천 맑은 세상 세린교회를 5월 29일 창립 45주년 기념예배에 맞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후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환한 목사님 미소를 보니 괜히 안심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 이름만큼이나 단아하고 햇살 가득한 밝은 교회가 맘에 쏙 들었습니다. 특별 찬양으로 저희가 앞 단상에서 축복송을 부를 때에는 성도님들과 서로서로 눈을 맞추었고, 처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정착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크게 불렀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 생일이라고 쌀 20킬로그램 2포대를 기증했다는 목사님의 광고는 참으로 정겹게 들렸습니다. 길이 막힐까 아침 일찍 서두른 탓에 시장했지만, 식당 봉사하시는 주방 권사님들을 보니 저희 2여전도회 평균 나이보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 순간 감탄과 송구함이 교차했습니다. 맛은 당연히 식욕을 앞섰습니다. 정희성 목사님께서 맨 나중에 뷔페 상차림에서 음식을 담는 모습은 역시나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회장님과 회원들의 요청으로 잠깐 삼악산에 올라 의암호를 바라볼 때 상쾌했고, 바람에 저마다 나뭇잎들의 흔들림이 찬양소리 같아서 일순간 천국 같이 느껴졌고, 가끔 내안의 기도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려지는 느낌과 함께 꽉 채워질 세린교회 본당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번 기회로 세린교회를 맘에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송성열 권사 / 2여전도회



맑은세상세린교회

은혜와 감사로 충만했던 세린의 창립기념일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일상을 탈피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일어서고자 다짐하던 5월 29일, 주님의교회 제2여전도회원들이 다른 날도 아닌 주일, 그것도 오전 예배시간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창립기념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사랑의 선물도 듬뿍 받았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도착하신 분들의 얼굴을 뵙는 순간, 주님의교회를 떠난 지난 시간이 이곳 춘천에 있었던 시간의 두배가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엇그제 만났던 분처럼 반갑고, 정겹고, 기뻐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이었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중후한 모습으로, 어떤 분은 이름과 제가 알던 기억속의 모습과 달라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교회를 떠나 이곳에 온 지난 세월이 바로 엇그제처럼 느껴졌고 마치 고향 사람들을 만나는 것같은 친근함과 포근함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친근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로구나!'라고 생각될 만큼 저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넘어선 어떤 새로운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님의교회가 베풀어 주신 사랑의 지원과 헌신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놀라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아~니, 목사님이 떠나신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우~와"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번 제2여전도회의 방문이 때마침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식사를 하기로 계획했던 날이라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오전예배를 본 교회가 아닌 타 교회에서, 한 두 사람도 아닌 한 기관이 예배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선약을 파기하시면서까지 어렵게 일정을 조정하여 참여해주신 황용환장로님,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윤경수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최정숙 권사님을 비롯한 제2여전도회 임원진 여러분과 찬양지휘, 반주를 비롯하여 천상의 목소리로 예배를 아름답게 이끌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저와 저희교회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일어서자!> <다시 한 번 도전하다!>라는 새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분의 힘찬 응원을 힘입어 새 일을 시작할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가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저희 교회도 이전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며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 정희성 목사 / 맑은세상세린교회

6선교회
협력교회 방문

예배자를 보내주소서

코로나 전에 황용환 장로님과 함혜련 권사님을 비롯한 주님의교회 국내선교부에서 파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함께 예배드릴 사람, 찬양 드릴 사람을 파송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창단이 와서 예배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3년 쯤 흐른 지난 주일(22.6.19.) 6여전도회가 방문해주었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기쁘면서도 부담이 된다. 교인들이 심방을 받을 때의 심정을 알 만하다. 지하실의 고장난 식탁 테이블 1개와 녹슨 의자 60개 정도를 치웠다. 식사는 간단하게 카레밥을 하기로 했다. 6월 18일(토) 오후 4시에는 내가 총무로 섬기고 있는 한국키예르케고어 학회가 서울 신촌에서 있어서 마음이 급했다. 학회를 마치고 밤 9시에 돌아와서 주보를 만들었다. 마침 프린터가 고장나서 주보도 임시로 4면 주보로 만들었다. 돌발상황이었지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와, 지원군이 온다.'

6월 19일 주일 아침, 부슬비가 내렸다. 3층 목양실에서 주일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10시경에 손님들이 온 소리가 들렸다. 차량운행을 맡아주신 송재승, 장동현, 구태호 집사님이 교회 마당의 쉼터에 계셨고, 임광희, 박설리 집사님이 '사랑의 종소리' 찬양곡에 맞추어 몸찬양을 연습하셨다. 그동안 임자가 없이 홀로 외로웠던 그랜드피아노도 오늘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황송한 것은 우리교회 예배자보다 방문하신 분들이 더 많다. 평상시대로 찬양 반주기를 틀고서 찬송을 불렀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프로젝터에 찬송가 가사를 띄웠다.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 찬양반주기는 처음'이어서 짠~하다는 후문이다. 황용환 장로님께서 기도인도를 하신 후, 담임목사가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설교 후에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봉헌의 시간 후에 양윤정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형제교회를 격려하고 후원한 것에 감사드린다. 설교할 때에 '버려진 백합, 가난한 백합'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전하게 입히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교회 교우들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메었다. 10초쯤 흘렀다고 하는데, 몹시 괴로웠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되는데 만년 초보자 목사라는 게 부끄럽다.

윤경수 목사님께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친 후, 오신 분들과 기념사진을 남겼다. 오신 분 중에는 나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반가웠다. 그중에 언니가 암투병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승연 집사님이 계셨다. 먼저 천국에 가신 언니 이선화 자매는 "내가 만일 회복되면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회복의 열정을 드러냈는데 자매의 말이 내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서 그 가족을 잊지 못한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에서 준비하여 카레밥을 먹었다

코로나시대 이후 처음으로 주방에서 밥을 했다. 메뉴는 카레밥과 묵은 김치였다. 정말 맛있게 드셨다. 식사 후 파주의 명소 헤이리마을을 지나칠 수 없었다. 헤이리 맞은 편은 쇼핑과 식당을 하는 프로방스 마을이 있는데, 방문팀은 헤이리 마을로 가서 한 카페에 가서 담소를 나누고 돌아갔다. 주님이 나의 편이듯, 방문하신 분들은 나의 편이었고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윤덕영 목사 / 파주삼성교회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어 자유롭게 흐르게 하소서. 회중의 시선을 보면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회중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언어를 배워서 전하게 하소서.
2. 기독교 복음을 이 시대에 새롭게 들리도록 쇠렌 키르케고르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8월초 번역출판 예정)을 통하여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깨닫고 누리게 하소서.

6여전도회
협력교회 방문

함께함이 즐겁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도회 활동도 2년반 동안 멈추어 있었다. 그동안 6 여전도회 회장님도 바뀌셨고 봉사내용도 작은 교회를 돕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회 활동을 재개하니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주일예배를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는 파주 삼성교회 윤덕영 목사님의 요청이 있으셨다고 들었다. 아주 잠깐 마음의 부담이 생겼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너무 편했는데 다시 해야 하나? 특송도 해야 한데 가지 말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런 나의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직장 다니시며 열심히 하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여전도회 연합예배에서 헌신해주시는 선배 여전도회 회원님들을 모습을 봐서 그런 건지.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바꾸고 나니 파주 가는 길이 마치 소풍처럼 기대가 되기도 했다. 정말 신기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막상 파주 삼성교회에 도착해서 두 번 놀랐다. 처음 놀란 것은 생각했던 것 보다 교회가 크고 예쁘고 갖출 것은 다 갖춘 외양에 놀랐다. 두 번째로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도 반주자가 없어 컴퓨터 반주기로 찬양을 하시는 모습에 마음 아프게 놀랐다. 예배 보시는 교인들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뿐이었다. 다녀오면서 파주 삼성교회에 교인이 많아져서 성가대 자리도 꽉 차고, 덩그러니 놓인 그랜드 피아노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가기 전에 망설이며 회피하려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며, 우리의 방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셔서 울컥하신 윤덕영 목사의 모습을 보며, 열심히 봉고차에서 특송 연습을 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녀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귀찮고 힘들어도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시간이었다. **곽수연 집사 / 6여전도회**

겨자씨이야기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는 겨자씨로

저희 겨자씨는 5-27(디딤돌) 부부 구역으로 6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금, 가락, 방이동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연령은 70대부터 50대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겨자씨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입니다.

저희들도 여느 겨자씨처럼 겨자씨 진행 절차에 따라 기본에 충실하면서 먼저 기도 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었던 안부와 근황을 나누며 교구 목사님이 주시는 영상 유튜브를 함께 공유하여 (수요일-금요일) 말씀 묵상을 서로 영적인 나눔 시간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축복 나눔으로 마무리합니다. 현재 무엇보다도 6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한 지붕의 한 가족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서로가 통용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배움의 자세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공동운명체의 사명자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13장 18절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상기하며 가정마다 충실한 일꾼으로 믿음과 신뢰속의 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기를 힘쓰는 겨자씨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의 기도 제목은 한가정 남편이 타종교라 구역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자주 부부동반 식사자리를 갖음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구역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수 있기를 인내하며 마음의 문을 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 상황에 전임구역장께서 구역장을 맡아서 섬겨보라는 권면있어 저는 구역모임도 1년 정도 참여하지 않아 낯설고 구역을 맡아 이끌어 가는 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 망설였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속에서 서로 배우는 자세로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서로가 한 가족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섬김으로 하나님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 저희도 원칙을 세워서 각자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들이 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한 달에 1, 3주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한 은혜를 체험 시간을 갖는다
- * 2, 4주는 가정에서 영상 시청 후 듀오 및 대면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
- * QT책과 성경책의 말씀을 일일 반복해서 영적인 묵상시간을 갖는다
- * 믿음 약한 자를 위해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적극 동참한다
- * 좋은 것은 겨자씨와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이기를 힘쓴다

지금은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지난 2년이상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구 목사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기도 덕분에 듀오 통신 방법과 대면 예배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 속에 가정마다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하여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에 자만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여 더 발전하는 겨자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는 겨자씨가 되겠습니다.

복향수 안수집사 / 5교구

8교구
종강감사예배

홀로,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상반기 겨자씨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종강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모두는 소위 사회적 격리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철저한 관계 단절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격리를 뛰어넘을 연결과 회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8교구는, 2020년 상반기부터 5학기 동안 Holy Sunday Happy 1PM 이라는 온라인 겨자씨모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 안의 또 하나의 교회인 겨자씨모임과 소그룹모임을 통해 대안을 찾아 움직였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진정한 공동체 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를 살면서, 물리적인 단절과 영적인 고립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과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함께'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8교구 식구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의 힘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립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동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내게서 공동체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합시다. 재미와 의미, 위로와 도전이 있는 은혜로운 모임, 겨자씨모임의 자리에 8교구 여러분 모두들 초대합니다.

한시영 목사 / 8교구



교회소식

주님의교회 통신공사 현황

주님의교회는 3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통신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개요 및 작업의 내용과 효과 등을 함글함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작업개요

주님의교회는 20년이 넘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발전하는 새로운 통신기술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여 콘텐츠의 한계를 느꼈으며, 코로나 펜데믹으로 2년 가까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와 양육 등 교회사역을 진행하며 통신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기가단위로 발전하는데 교회 내부선로는 100M용 선로이며, WIFI통신도 공공시설까지 보편화된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접속이 어려웠습니다. 본당 예배 실황 송출을 제외한 다른 공간에서의 실시간 송출 및 영상 수신에도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CCTV영상도 디지털화하여 500만 화소의 초고화질로 발전하고 있으나, 교회설비는 42만 화소의 아날로그 카메라 시스템으로 그마저 단종되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CCTV 총 64회선 중 16회선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통신 관련 설비를 교회 건립 후 20여년 동안 부분적으로 증설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전면 재설계하여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작업 범위

인터넷 및 와이파이, CCTV통신을 위하여 통신선을 포설하고 각 층별 통신장비와 교회 내부 초고속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회 내부 및 외각 교회 주변, 운동장 주차 상황 파악용 고성능 카메라 설치하고 외부 사이버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도 설치하였습니다.

작업내용

- 내부선로 층간 광케이블 및 각 실 1GB선 포설
- 전산실에 최신 방화벽 장비 1대 및 메인 L3 switch 10g 장비 1대 설치
- 각층 중계 장비 L2 switch 10g 장비 15대 설치
- 500만 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 내외부 61개소 설치
- NVR 녹화 장비 64채널 장비 1대 설치
- 교회 내부 전층 51개소 1GB 와이파이 장비 설치
- 각층 사무실 최신 1GB 지원 HUB 24대 설치

개선효과

통신공사를 통해 내부 유선 네트워크 속도가 100MB에서 1GB로 향상되었으며, 각 실별 실시간 예배 동시 송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 전층에서 무선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 건물 내외 고화질 CCTV 경비가 가능해졌고 교회 네트워크 보안도 강화되었습니다.



교회사용설명서①

‘주님의교회’와 ‘주님의 교회’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26일 창립예배를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창립 이틀 전인 6월 24일에 교회창립준비기도회가 열렸는데, 당시 참석했던 16명은 헌금의 50%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포함한 교회 운영 원칙을 몇 가지 정하는 가운데, 교회의 명칭을 ‘주님의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창립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이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이름을 제시하는 가운데 당시 초대 교역자로 참여했던 이재철 전도사가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철 전도사가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을 제안한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특정인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으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들은 그 정신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이름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주님의’라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므로 이름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므로 어느 특정한 교회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쑥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교회’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당시 사회 통념상 익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년들에게는 왠지 대놓고 말하기 쑥스러운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자, 일단 후보에 교회 이름이 올라야 되므로 가칭 ‘주님의교회’로 정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여 첫 후보 이후 ‘주님의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천 방법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지만 원칙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실천되었던 반면,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은 1989년 9월 평양노회에 가입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정식 교회 이름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교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정신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더욱 오랜 시간 갈등과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십자가 형태였던 주님의교회 엠블럼이 지금의 형태로 바뀐 것은 2009년입니다. 주님의교회 영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의 머리글자인 ‘PCL’을 기본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공동체 일원들이 주님을 향해 영적으로 한 계단씩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한 계단씩 실천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사용 방법

오프라인 모드

주님의교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1층에 있으며, 청년예배를 포함 주일 5차례의 예배가 진행되고, 매주 수요일 수요일 예배, 매일 주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연령별 예배, 영어예배, 영유아예배, 어와나, 제자훈련, 장애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운동장에는 주일 예배시간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모드

주님의교회의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인 <http://www.pcltv.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주일예배 실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교회PCL’을 검색하시면 주님의교회 채널을 만나실 수 있으며, 모든 예배의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주님의교회를 사용할 때에는 특히 이름의 띄어쓰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49항에 의하면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주님의교회에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교회’를 표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쓸 때, ‘본디 주님이 주인이신 모든 교회’를 뜻하는 말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실 정신학원 안의 주님의교회를 뜻할 때에는 붙여쓰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일정

7/3(주일)	성찬주일(성찬식)
7/6(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5교구 주관)
7/10(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유유청청 여름행사 안내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 7/9(토) -10(주일)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 7/9(토) -17(주일)
청소년숲	여름수련회 : 7/24(주일) -31(주일)
청년숲	여름수련회 : 8/13(토) -14(주일)

2.2022년도 온라인 비전트립 신청 및 일정

베트남	: 7/15(금) -16(토)
키르기스스탄	: 7/22(금) -23(토)
코스타리카	: 7/29(금) -30(토)
필리핀	: 8/19(금) -20(토)
문의	: 박성갑 집사(010.5274.8590)

3.주방부원 모집

주방봉사로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1부 (06:00-09:00)

2부 (09:00-11:00)

3부 (11:00-13:30)

문의: 김현희 권사(010.2289.9258)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